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8. 19.(수) 11:00 (지면) 2026. 8. 20.(목) 조간 배포 2026. 8. 19.(수) 06:00

민·관이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

- 경남 고성군 덕명리 인근 해역에 민·관 협력 바다숲 1개 조성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8월 20일(목) 민·관*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활성화를 위해 LG전자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최성봉 LG전자 전무,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,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.

* (정부) 해양수산부 / (민간) LG전자 / (지자체) 경상남도 / (공공) 한국수산자원공단

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▲수산자원 증대 및 생물다양성 확보, 탄소중립 실현, ▲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활성화, ▲해조류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제인증 획득 노력 등을 위해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.

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LG전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6.5억씩 총 13억을 투입하여 고성군 덕명리 해역에 바다숲 1.5km²를 조성*할 계획이다.

*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위에 붙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, 해조류 이식,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,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

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 수행과 관리를 담당하고, 경상남도는 해당 바다숲 조성이 완료된 이후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해조류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협력은 정부와 민간, 공공이 뜻을 모아 바다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상생사례가 될 것이다”라며, “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바다숲 조성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동양 (051-773-5530)
	수산자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정윤석 (051-773-5531)